

지금은 택배 전성시대, 개인정보 유출은 막으세요!

글 김형자(과학칼럼니스트)



AI, 4차 산업혁명, 플랫폼노동 등 요즘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다. 거창한 단어들이지만 택배기사들이 직접 방문하는 ‘택배’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디서든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운송 수단으로 택배만한 게 없다.

무심코 버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줄줄’ 샌다

요즘은 ‘택배 전성시대’이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하면서 택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어지간한 물건은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고, 택배로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디서든 물건을 보내면 2~3일 내로 받을 수 있다.

현재 택배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 중이다. 단순히 물건을 배송만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얘기가 돼 버렸다. 외환 환전에서 경조금 봉투, 기숙사 짐까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 택배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택배사들이 특화서비스란 이름을 붙인 취급품목은 엄청나다. 여기에 계절 특수상품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셀 수가 없다.

장소도 상관없다. 소비자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 간다. 신혼여행 호텔에도, 휴양지 바닷가에도, 골프장에도, 스키장에도 물건을 배달한다. 대개 나라 안으로 한정되지만 국제 물류회사는 국제 택배를 취급하

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 택배사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구조다. 운송 반경이 넓어 유튜브 등의 지출이 많은 미국 등에 비해 우리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까지 인구밀도가 높아 가까운 지역으로 더 많은 택배 물건을 배달할 수 있다.

택배 서비스는 여러모로 편리하다. 하지만 간혹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엔 난감한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 등은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택배사 직원이 오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어디 비밀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했다가 누가 덜컥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 또한 손해 막심이다. 이럴 때도 걱정 없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나 주유소를 택배 물건을 주고받는 장소, 이른바 포스트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수령 서비스는 안정맞춤이다.

문제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택배상자를 열었을 때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박스에 붙어 있는 택배 운송장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택배 운송장은 크게 품목란, 고객용 정보란, 배달표로 구성된다. 그 중 배달표에는 택배 수신인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다. 택배기사의 정확한 배송을 돕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배상자를 버릴 때 상자에 붙은 택배 운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밖에 내놓을 때가 많다. 이는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몇 가지 개인정보만 조합해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상과 사생활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실제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정작 택배 운송장이 제거되지 않아 유출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개념도 전혀 없다. 이제부터라도 택배 운송장을 꼭 떼어 내자. 손으로 찢는 것이 불편하다면 물파스나 아세톤을 발라 글자를 지울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막는 새로운 형태의 택배 서비스 등장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지능화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홈넘버(Home Number) ‘스마트 택배’도 그 중 하나다. 홈넘버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11개의 숫자만으로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캡슐화한 후 11개의 숫자로 변환하여 대체한 ‘숫자주소 플랫폼’이다.

전화번호 기재란을 코팅(Coating) 처리한 운송장도 등장했다. 택배상자에 붙이는 마지막 장의 전화번호 기재란을 코팅 처리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인쇄시켜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코팅 처리된 운송장은 고객이 작성한 택배 운송장에서 고객 영수증

용과 택배기사 배달표를 제거한 이후 그 밑에 남은 것으로, 택배상자에 부착되는 운송장을 말한다.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한 공유 택배박스도 개인정보 유출을 돕는다. 공유 택배박스를 여러 사람이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중국에서 등장한 공유 택배상자는 플라스틱 제형에 종이처럼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수취인은 택배를 받은 다음 내용물만 취하고 상자만 바로 택배 배달원에게 돌려주면 된다. 상자에 개인정보 없이 바코드만 붙였기 때문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상자과 달리 약 1,000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택배 종이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송장 자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테면 운송장에 기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QR 코드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표시해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QR 코드 내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송장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택배 전자운송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전자기록 등과 관련해 다양한 국제/국가/단체 표준을 개발해 온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 단체 표준화하였고, 관련 2개 표준이 2016년 12월 TTA 단체 표준으로 개정, 채택되었다.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통일되고 강제력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 **TTA**